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정복지 연구 및 실천을 중심으로* -

박민선**

논문초록

본 연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기독교적 믿음과 실천을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 방편으로서 교정복지 연구 및 실천이 갖는 의미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교정복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새롭게 정의된 교정복지 영역에서의 교회의 참여 필요성과 의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분석을 통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기관들의 교정복지 영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조사하고, 결과분석을 통해 교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과 향후 교회의 교정복지 참여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교정복지,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세계관, 재조명, 구속적 관점

* 이 논문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교정복지연구소 소속, kacwc@hanmail.net
2012년 8월 1일 접수, 9월 5일 최종수정, 9월 24일 게재확정

I. 서론

‘교회는 사회복지를 낳고 기른 어머니’¹⁾라는 표현처럼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 왔다. 교회의 복지활동은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갇힌 자, 주린 자, 헐벗은 자, 눌린 자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한다는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²⁾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교회 및 그리스도인들은 약자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사회봉사나 사회복지사업들을 행해 온 오랜 역사와 실천적 지혜, 폭넓은 자원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교적 사명감은 물론, 헌신에 기반한 봉사 정신, 풍부한 자원봉사 인력, 비영리적 성격과 경제적 효과성까지 갖추고 있는 교회는 국내외에서 지역사회와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이원복·김미숙·박민선·박혜련, 2011).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교회 및 기독교 기관을 빼놓고 사회복지 관련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한국 교회 또한 그동안의 빠른 성장 및 부흥과 함께 국내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긍정적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의 사회복지지는 외국 기독교 선교단체의 구호 및 자선활동에서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전체 사회복지 활동 중 큰 비중이 기독교 기반 기관 및 단체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국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고경환(2006)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복지시설 4,048개 중 종교계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수는 전체의 53.4%에 해당하는 2,162개이며, 조사 가능한 전체 종교계 운영시설 1,891개 중 47.2%가 기독교 시설이었다.³⁾ 또한 종교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사회복지활동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원복 외, 2011; 김미숙 외, 1999; 김청호, 2001; 문화규, 2007; 유장춘, 2000).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적극적 관심과 활발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

1) Reinhold Niebuhr,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Social Work*, Columbia Univ. press, 1945, pp. 1-4.

2) 출애굽기 21:2-11, 22:21-24, 신명기 14:28-29, 24:19-21, 레위기 19:9-10, 이사야 61:1-3, 마태복음 5:13-15, 22:37-39, 25:31-46, 누가복음 4:18-19, 사도행전 2:44-47.

3)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8 한국의 종교현황’에서도 종교단체 관련 사회복지 주요법인 372개 중 기독교 관련 법인이 192개(전체의 52.15%)를 차지하고 있다.

구들은 국내 기독교 기관들의 사회복지 활동이 높은 참여율에 비해 서비스 질이 낮고 지나치게 획일화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박창우, 2007).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 및 기술의 전문성은 대부분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강춘근, 2004), 지나치게 단순하고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의 부족은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강기정·변미희 외, 2004; 김동배, 1993). 이러한 기독교 기관의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전문성 결여는 소규모의 개 교회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일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양혜원·김희수, 2011)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변화를 위한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은 다양한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여러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론개발, 기독교사회복지 실천모델구축, 기독교 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 등의 실패로 인해 이론적 전문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박종삼, 2003; 강춘근, 2004; 양혜원·김희수, 2011) 기독교사회복지의 학문성과 전문성 결여는 신앙과 믿음을 앞세워 외적 경건과 교회성장만을 추구할 뿐 삶에서의 변화나 내적성숙에 대해서는 등외시해 왔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이원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관을 기독교사회복지 이론과 실천을 통해 구현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장에서 기독교 신앙과 전문 기술을 통합하여 적용해야 할 사회복지 임상가 및 행정가는 물론, 기독교적 가치관과 영성을 바탕으로 기독교 사회복지의 철학 및 이론적 체계 구축을 감당해야 할 기독교인 연구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제기된다. 신앙과 삶, 영성과 실천의 이원론 문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 전반과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 결과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그 당위성만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는 기독교가치관에 기반한 이론과 실천기술이 적용된 기독교사회복지라는 독자적 분야로 개발되지 못한 채로 그 의미와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기존 기독교 사회복지나 교회사회사업과 같은 용어들은 지금까지 그 의미가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못했다. 교회 안에서조차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중심이 된’, ‘주체’의 관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일반 사회복지와 기독교사회복지의 차이를 단지 ‘누가 하느냐’ ‘누가 주체인가?’의 차이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과학과 종교를 분리하는 전통적 과학연구방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서, ‘기독교’와

‘영성’의 의미를 추가함으로써 더 깊이 있고 본질적 차원으로 승화되고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을 오히려 사회복지의 한 하위영역인 것처럼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방식에 따라 영성이나 믿음의 영역과 같은 초이성적 영역을 인식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사회복지의 인간과 사회에 천국(복지사회)을 구현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반 사회복지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강춘근, 2005)

이러한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본질적 ‘의미’와 ‘방향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외형적 틀과 개념에 따른 편의적 분류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학문이나 실천영역을 정의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까지 기독교 가치관은 학문과 종교의 분리라는 명분에 의해 학문 영역에서 간과되거나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종교를 학문과 사회로부터 분리해내려는 세속적 경향뿐만 아니라, 세속에서의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영성만을 추구하려는 그리스도인의 폐쇄적 경향성 모두가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 연구자들은 이원론을 극복하고 복음이 학문과 삶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해야 한다. 먼저 기존 학문의 제 이론과 관련용어들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구속적(救贖的) 시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영성에 근거한 통합적, 통전적, 전인격적 용어 및 이론의 토대구축을 시도해야 한다. 더불어 세속적 학문의 틀과 성경적 시선과의 비교 및 연구를 통해 일반화된 언어와 논리체계로 그리스도인과 비(非)그리스도인 모두를 설득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또한 통합된 이론 및 실천체계를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적용하여 개인과 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신앙과 학문, 신앙과 삶이 분리된 오늘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 임상가와 현장 전문가, 행정가, 연구자들에 의해 실천되는 교정복지 영역 또한 기독교사회복지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영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실천체계와 개념, 용어의 정의를 재창조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⁴⁾ 편의상 교정복지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한 하위영역으로서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와 같이 ‘범죄인과

4) 여기에서 교정복지는 기독교세계관을 근거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사실 기독교교정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 우리는 기독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보다 더 폭넓고 깊은 차원의 영역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일반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정복지 또한 성경적 원리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반화된 논리와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당위성과 가능성에 따라 교정복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비행청소년'이라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영역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교정복지는 모든 사회구성원과 관련된 본질적인 변화를 다룬다.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성(sin)을 가지고 출생하여 성장하며 예외 없이 변화와 성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의 범죄와 비행에 대한 설명과 대안 제시는 물론, 인간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갈등과 문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분석틀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조명한 교정복지는 모든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자신과 사회의 전 구성원을 교정(변화)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또한 모든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클라이언트를 대한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해석에 근거하여 교정복지는 모든 구성원들과 관련된 본질적 변화와 성장의 이슈를 다룬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빈번히 범죄에 노출되고 있으며 비행이나 범죄행동은 사회에서 점차 일반화,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기독교 영성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 문제를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대안인 성경적 가치관과 영성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세상 속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근거로 인간의 문제를 해석하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원리와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도모하는 교정복지활동은 교회가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통로인 동시에 이 시대 교회 스스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고 이원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정복지의 현황은 기독교사회복지의 현황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적 의미와 가능성을 간과한 채로 동일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통적 교정 분야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참여는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그 내용과 질, 전문성, 정신과 가치관에 있어서는 일반 사회복지 분야와 동일한 전문성 저하와 서비스 획일화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정복지에 대한 교회의 참여율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러한 한계는 복음을 근거로 비행과 범죄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영성 통합적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기독교인과 기독교 기관은 교정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실질적 참여의 확대를 통해 교회 내의 이원론을 극복함으로써 이로 인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의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적 논점에서 재조명한 교정복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참여에 있어서의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현재 교회의 교정복지 참여에 있어서의 관심과 참여수준은 어떠한가, 한계와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회의 교정복지 참여에 있어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정복지에 대한 시선전환이 필요한 근거는 무엇이며, 그 구체적 개념 및 범위는 어떠한가?

둘째, 현재 국내 기독교 기관⁵⁾의 교정복지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사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기독교 기관들이 교정복지에 참여에서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II. 문헌연구

1. 기독교와 교정복지 연구 및 실천

1) 기독교의 교정복지 참여 역사

교정복지의 역사는 뜻있는 기독교인들과 종교단체의 헌신에 의해서 시작되고 발전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비행과 범죄의 영역은 사회의 냉대와 멸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은 범죄자에게 단순히 형벌을 부과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범죄자들을 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교정교화를 추구하도록 교정처우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또한 이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범죄자만이

5) 여기에서 기독교 기관 및 단체라 함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활동,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교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기독교 신문사, 선교기관 및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도 변화와 개혁을 위한 도모를 꾸준히 전개하였다. 특히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소수의 실천가들은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18세기 후반 하워드(John Howard)의 교도소 내의 수용자 처우의 개선과 교정기관의 개량운동, 19세기 초 엘리자베스 프라이(Elizabeth Fry)가 펼친 아동교육 사업과 감옥여건 개선사업, 수형자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18세기에 미국에서 설립된 ‘불행한 재소자들을 돕기 위한 필라델피아 협회(Philadelphia Society for Assisting Distressed Prisoner)’의 교도소 개량과 출소자 보호사업 등은 형법과 사법행정, 감옥관리 전반에 걸친 사회 개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제도화에 기여하였다(한인섭, 1993).

영국, 미국 등 서구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교회의 교정복지 참여 활동은 최근까지도 꾸준히 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단체들의 교정영역에서의 활발한 참여와 범죄예방과 사회개선 효과는 놀랄만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종교기관의 사회복지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1996년의 자선단체 선정법(Charitable Act)을 시작으로 비영리 기관의 교정복지노력에 대한 지원기금을 제도화한 2007년 제 2기회 법(Second Chance Act),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앙기반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자 설립된 신앙기반 지역사회 법안(Faith-based community initiative, 2001), 그리고 이를 확대개편한 2008년 오바마 정부의 지원제도까지 종교기관은 정부의 공식적 지원을 받는 파트너이자 적극적 사회참여의 주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이원복 외, 2011; 박선영, 2009; Johnson, 2011).

국내의 교정복지 역사에 있어서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신앙기반단체(faith-based organizations)들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 및 민간 교정영역에서의 기독교 참여의 역사에 대한 공식적 자료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우선 공적 영역을 살펴보면, 교정시설에서의 종교인의 공식적 활동은 일제시대인 1931년도 제6대 조선총독 우가끼 미나미 총독기에 신설된 교회(敎誨)교육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교회는 수형자의 덕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도로서 개인교회, 특별교회, 총집교회로 나뉘어 주로 종교인인 교회사(敎誨師)의 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는 주로 불교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후 교회제도는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에 종교교회라는 이름으로 체계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제1,2공화국 당시에는 기독교 중심의 활동으로 발전되었다. 이어 3공화국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3종과

가 운번제로 돌아가며 교회부문의 주축을 이루었다(이정찬·김근재·남광재, 2002). 현 제도 기독교는 종교영역의 교도소 교정교회활동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의 국내 교도소선교는 일제강점기 때 투옥된 기독교인 독립운동가들이 다른 수감자들을 전도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45년 11월에 열린 조선기독교남부대회에서 ‘형목’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당시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던 제1공화국 관계자들이 이것을 적극 허용하면서 1945년에 형목제도가 공식 도입되었다. 이에 장로교 목사 13명과 감리교 목사 8명이 전국 교도소에 형목, 곧 교무과장으로 임명되었다. 형목제도의 창설에 따라 당시 법무부 내에도 형정과가 설치됐고, 초대 형정과장으로 1948년 김창덕 목사가 취임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형목 제도가 폐지되었고, 1983년부터 현재까지는 기독교지도자들이 불교, 천주교와 함께 종교위원의 일부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⁶⁾ 오늘날의 지역사회 교정복지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와 기독교인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소자나 비행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영적 지원에서부터 다양한 사회 복지적 지원에 이르는 공식·비공식적 지원을 제공하는 주된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할 수 있다.

2) 교정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기독교 참여 현황

교회 및 기독교기관들은 자발성 및 적극성,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영향력 등 섬김의 주체로서 다양한 긍정적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은 잘 짜인 조직과 네트워크,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주체이자,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자발적 단체들이다. 이러한 민간 종교자원들은 종교적 헌신을 바탕으로 영리를 목적하지 않는다는 점⁷⁾과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자원봉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Johnson, 2011)⁸⁾, 전통적 교정복지영역 외에도 사회의 다양한

6) 뉴스미션 조성에 기자

7) 교회의 약자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발적인 것이며,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마 6:3)’는 말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규모와 그 영향력은 그동안 본격적으로 평가되거나 드러나지는 않았다. 혹은 평가 절하되어 온 측면이 있다(Johnson, 2011)

8)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의 자원봉사 인력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도소 교정교회 활동에 있어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갱생보호시설 중에서도 7개 기관 중 4개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기관이다.

제반 문제 해결과 예방, 인간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의 영역에서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범죄자나 출소자, 비행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사회적 지원과 가족차원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기반 단체들은 이러한 지원을 제공해주는 지지체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성공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활기술에서부터 교육, 직업, 상담,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나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독교는 개인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욕구나 문제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함께 참여하여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을 교회의 가르침과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도 꺼리고 부담스러워하는 대상인 범죄자 및 출소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주체이다(이원복 외, 2011).

현재 교정 복지 영역에서 종교인 및 종교기관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에는 약 37만 5천 개의 종교기관이 있으며 미국의 사회적 자본의 거의 반이 종교영역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Johnson, 2011).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종교집단 참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는 독립영역(Independent Sector)⁹⁾에 의한 프로젝트¹⁰⁾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Hodgkinson, Weitzman, & Kirsch, 1988). 설문대상의 추출 결과 4,205개의 지역종교단체가 임의추출되었으며, 이 중 설문에 응답한 종교집단의 성직자는 총 1,353명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총 87%의 종교집단이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내역을 보면 가족 상담(79%), 청소년 캠프나 프로그램 및 레크리에이션(79%), 식사제공 서비스(38%), 노숙자 쉼터 및 주거시설(32%), 주간보육시설(31%), 방과후 프로그램(30%), 십대미혼보 프로그램(29%), 교육 프로그램(26%), 가정폭력피해자 프로그램(25%), 노인주거시설(1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종교집단의 41%가 5개 이

9) 미국의 비영리 기관, 자원봉사, 자선활동을 촉진과 관련한 워싱턴 기반의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10) 갤럽 및 연구자와 교회지도자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전역의 종교집단(유대교, 이슬람교 등 비기독교 종교집단을 포함했으나 그 규모는 매우 적음)의 담당 성직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와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종교집단의 종합 전화번호부는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미국의 9개의 인구조사 지역 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18개를 임의추출하여 각 도시의 전화번호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였다.

상의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어도 세 개 이하의 활동을 하는 집단이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서의 교정복지에 대한 기독교 기관의 참여는 출소자나 비행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숙자, 중독자, 재소자 가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¹⁾ 미국에서 이루어진 교정개론연구조사(correctional compendium faith-based program, 2003)에 의하면 시설의 신앙기반 프로그램과 예배 서비스가 미국의 모든 교정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신앙기반 기관에서는 다양한 교정복지 영역에 대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정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¹²⁾ 모든 교정기관에서 기독교 예배 서비스를 실시하는 외에도, 전체의 93%에 해당하는 교정 기관에서 기도모임을 제공하고, 39%가 영성의 성장을 돕기 위한 멘토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이원복 외, 2011). 기독교 기관은 오랜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주요 주체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기관의 교정복지 참여에 대한 참여와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통계는 종교위원현황이다. 종교위원은 전국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교정교회활동을 위하여 위촉된 순수한 민간 자원봉사자로서 덕망 있는 목사, 승려, 신부 등의 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수용 중에는 종교상담, 교리지도, 자매결연, 교화도서 기증 등을 실시하며, 출소 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교정복지전문학교, 2005).¹³⁾ 2010년 전국 종교위원으로 활동하는 1,925명 중 기독교 종교위원은 931명으로 가장 많다. 그 외에도 공식적인 종교기반 교정복지 지원단체는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갱생보호활동을 맡고 있는 7개의 민간법인이 있으며 이 중 개신교 기관이 4개, 천주교 기관이 3개로 7기관 모두 기독교 기관이다. 이 외에도 많은 기독교 미인가 시설들이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작고 후원체계가 성숙되지 않아 운영자의 노력과 열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원복 외, 2011) 이는 일반사회복지 제 분야에서 기독교기관의 참여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교정복지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참여는 높은 편이나 그 내용과 질, 전문성, 정신과 가치관에 있어서는 동일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11) 교정시스템의 93%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는 기도모임, 70% 이상은 신앙기반 프로그램에 기초한 개인적 성장과 부모교육 수업을 제공한다. 또한 64% 목상그룹과 결혼교육, 39%는 종교적 성장을 돕기 위한 동료 멘토제도(peer mentor program)를 제공한다(Hercik, 2004).

12) 2006년 통계에 따르면 3000개 이상의 신앙기반 종교기관들은 정부로부터 2.2조원의 기금을 받았다.

13) 교정복지핸드북(2005). 교정복지전문학교.

3) 교정연구에서의 기독교세계관 적용의 필요성

사회복지의 제반영역 중에서도 비행과 범죄의 문제를 다루는 교정 복지(correctional social work)영역에 있어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는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의 도덕성을 높임으로써 범죄경향성을 줄이고 범죄인을 교화시키며 범죄를 예방하는 등 범죄감소와 사회 안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쳐 왔다 (Johnson, 2011; Hercik, Lewis, Myles, & Roman, 2004; Laub & Sampson, 2001; Mears, Roman, & Wolff, 2006; Burkett, 1977; Benda, 1995; Regnerus, 2003; 박선영, 2009; 배임호, 2008). 이러한 종교의 효과성은 사회복지학은 물론 범죄학과 사회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최근 중요한 연구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범죄와 비행을 교정하고 범죄 위험을 예방하며 문제행동 및 범죄성향을 변화시키는 종교의 영향은 오랜 역사에 걸쳐 그 효과성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어 왔다. 많은 범죄학자들이 다양한 이론구축을 통해 이러한 종교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기독교의 종교적 특성인 영성은 그 자체가 범죄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근 개인 혹은 개인이 속한 기관의 종교(영성)가 범죄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사회학과 범죄학의 다양한 이론들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영성)와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에는 종교적 도덕기준에 따른 행동반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옥불이론(Hellfire theory), 종교기관이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행동을 줄인다는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 친사회적이며 일탈이나 범죄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진 종교집단과 긴밀한 유대를 가질 경우 범죄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종교를 갖게 되면 회심이나 회개와 같은 행동변화를 일으키는 생애의 전환점을 경험함으로써 범죄행동을 그만두게 된다는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 등이 있다(Hirschi & Stark, 1969; Hercik et al., 2004; Laub & Sampson, 2001). 최근 들어 영성과 학문을 통합하려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사회 내에서도 높아지는 범죄율에 대처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에 따라 종교기관 및 영성이 개인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의 일환으로 종교사회복지, 신앙기반 사회복지실천(faith-based social work)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활동도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실증적, 이론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볼 때,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비행과 범죄영역을 재조명해 보고 인간의 본질적 한계와 변화의 문제로 확대하여 그 원인과 구체적 메커니즘을 해석하고 영성과 이성, 육성의 전인격에 대한 통합적 대안을 찾는 노력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정복지의 개념 및 범위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새롭게 확장된 교정복지의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다. 범죄와 비행이라는 분명한 규범의 틀 내에 포함된 문제행동 및 주체들만을 초점으로 두었던 기존의 교정복지 개념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는 범법의 틀 외에도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폭넓은 대상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정복지 개념은 기본적으로 창조-타락-구속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과 현재 상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성경적 분석들과 사회복지의 다양한 행동이론 및 개입기술을 통합하여 비행과 범죄영역을 재조명하고 이를 인간의 본질적 한계와 변화의 문제로 확대하여 그 원인과 구체적 메커니즘을 해석하고 영성과 이성, 육성의 전인격에 걸친 인간성 회복에 대한 통합적 대안을 찾는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재조명된 교정복지는 ‘인간다움’의 기준에 따라 발견되는 개인의 다양한 삶 속에서의 한계에 대한 각성과 이에 따른 전인격과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교정(변화)된 존재로서의 개인이 속한 가정, 학교, 직장, 사회를 변화(교정)시키는 인간 본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새로운 교정복지 개념과 이론체계 정립의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과 필요성, 전체적 방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론정립의 과정에서는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들이 기존의 용어와 중첩되거나 다소 모호하거나 체계 구축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개념들도 다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교정복지에서 다루려는 가장 본질적 개념인 죄성(sin)의 개념만 하더라도 일반적 학문 영역의 용어로 더욱 다듬어지고 표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원리와

기술들을 보편화된 용어와 체계로 설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한계와 죄성이 삶의 다양한 영역 안에서 발현되는 메커니즘(mechanism)과 범죄와 비행과의 연관성, 문제행동의 발전 및 변화의 과정, 변화 이후의 다양한 이슈, 개인의 변화와 가족, 사회의 변화와의 관계 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해석과 이론 및 실천체계 구축이 새로운 교정복지 영역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할 작업들이 될 것이다. 다음은 교정복지의 개념을 네 가지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각 단계에 있어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들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표1〉 새로운 개념의 교정복지 요소와 각 요소에 포함 가능한 개념의 예

새로운 교정복지의 구성요소	각 구성요소에 포함 가능한 구체적인 개념의 예
1. 성경과 사회복지 원리에서 제시하는 '인간다움'의 기준에 따라 발견되는 개인의 삶 속에서의 한계에 대한 각성	문제의 정확한 발견과 인정, 내면 메커니즘의 이해와 파악, 해석, 반성과 돌이김(회개), 구체적인 변화에의 결정
2. 전인격과 삶의 변화	변화의 시도, 훈련, 낭만 버리기, 재할훈련, 철저한 내면의 부정적 메커니즘 뿌리뽑기, 복음적 가치관에 따라 관계 재정립하기, 과거 체계 버리고 인격적인 자기결정으로 새 체계 세우기
3. 교정된 존재로서 개인이 속한 가정, 학교, 직장, 사회를 변화(교정)시키는 인간 본연으로서의 역할감당	개인이 먼저 교정되어 그 시선과 능력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자로 역할을 감당, 인간으로서 가진 가치와 역할을 다 하는 것
4. 사회의 교정	제도의 개혁 및 사회 구성원의 변화

새롭게 규정된 교정복지는 기존의 교정복지와 동일하게 행동의 교정, 즉 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나 이론, 자원을 동원하고 적용한다는 점을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범죄와 비행이라는 분명한 규범의 틀 내에 포함될 문제행동과 문제행동의 주체들만을 초점으로 하는 기존의 교정복지 개념과는 달리,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정복지는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는 범법의 틀 외에도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폭넓은 대상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비행청소년과 범피자는 물론, 범법을 하지는 않았지만 병리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태도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아가 자신과 세상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죄성(sin)을 가진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개입의 목적과 초점, 문제의 해

석과 원인에 대한 이해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진다. 다음은 기존의 교정복지와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정복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각의 정의와 관련용어, 대상 등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2〉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정 복지와 기존 교정 복지와의 차이점

		기존 교정복지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정복지
정의		기존의 교정복지란 사회복지실천방법론을 활용하여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이 심리사회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최옥채, 2006) 사회복지의 한 분야론으로서 그 대상이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혹은 재소자이든 출소자이든 그리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범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관을 근간으로 사회복지의 정책과 실천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홍봉선, 2004)	성경적 분석틀과 사회복지의 다양한 행동이론 및 개입기술을 통합하여 비행과 범죄영역을 재조명하고 이를 인간의 본질적 한계와 변화의 문제로 확대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와 모순의 원인과 구체적 메커니즘을 해석함으로써 영성과 이성, 육성의 전인격에 걸친 인간성 회복에 대한 통합적 대안을 찾는 노력(시도)
공통점		행동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이론, 자원을 동원하고 적용한다.	
차이점	개입 목적	외현화된 범죄행동(crime)에 초점을 두며 행동의 결과를 근거로 판단함. 범법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교정하는데 관심이 있음	범죄행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내적 본질인 죄(sin)에 초점을 둔. 따라서 행동의 결과가 아닌 행동의 동기와 태도의 방향성을 바꾸는데 관심을 가짐. 단순히 범법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 자신에 대한 태도, 경제습관, 목표와 비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격적 체질을 만듦으로서 개인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개입 초점 및 특성	문제 중심 처벌적 측면(형사사법, criminal justice)에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음	변화(correction) 중심 역할과 가치 회복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기존 교정복지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정복지
차 이 점	문제 원인 및 해석	사회의 부조리, 낙인, 모순 등 외부의 요인	자신의 내부에 체질화된 비인격성과 범죄성향이 요인인 동시에 일차적 교 정의 대상 사회의 모순 등 외부의 요인도 부분 적으로 영향
	관련용어	형사사법, 형법	재활 회복 치료 구원(구속) *영혼구원 *삶의 구원 성숙 변화
	대상	사회에서 정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범한 청소년 혹은 성인 범죄와 비행은 특정 계층의 문제로 봄	비행청소년과 범죄자는 물론, 범법을 하지는 않았지만 병리적이고 건강하 지 못한 태도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아가 자신과 세상을 비인격 적으로 대하는 죄성(sin)을 가진 모든 사회구성원

새롭게 정리되는 교정 복지는 일반 사회복지의 하위분야에 포함되었던 기존의 교정 복지와 기본전제와 범위 등에서 차별점을 갖는 한편, 일반사회복지의 제 분야와도 차이점을 가진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정복지는 모든 구성원들과 관련된 본질적 변화, 성장, 재활, 회복을 다룬다는 점에서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 제 분야의 대상들을 포괄한다. 그러나 변화와 성숙의 측면에 개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개입대상(클라이언트, client)이 불건강성과 비인격성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범죄성향(죄성)을 가졌다는 전제 하에 원리와 실천기술을 적용한다는 점 등에서 독자적 분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즉 사회복지의 제 분야와도 공유점과 차별점을 분명히 가진 독립적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정복지 연구 및 실천이 포함할 수 있는 세부분야를 예를 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정복지 연구 및 실천에 포함 가능한 세부영역의 예

교정복지 세부영역	세부사항	특성 및 구체적인 예	
교정복지의 범위	교정대상의 일반화 추세분석 (교정개념의 확장연구)	범죄 및 비행의 저연령화	과거 전통적인 비행 및 범죄 시작연령보다 훨씬 어린 연령부터 범죄가 시작.
		범죄 가해자군의 다양화	호기심이나 원한으로 인한 우발성 범죄에서 반사회적 성격에 의한 범죄까지 범죄의 수준과 유형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가능해짐.
		범죄의 흉포화/연쇄 범죄화	과거에는 생계를 잇기 위해 절도나 사기와 같은 생계형 범죄가 주를 이루었다면, 반복적으로 범죄 자체를 즐기는 범죄(범죄를 위한 범죄)가 증가. 중독, 공격성, 분노가 늘어나면서 범죄의 수준도 과거보다 훨씬 더 흉포화됨. 반사회적 성격이나 품행장애, 주의력결핍 행동장애, 중독, 피해의식 등 범죄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성격유형도 급격히 증가.
		여성과 노인 범죄의 증가	여성의 인권 향상과 사회참여증가, 노인의 수명증가와 건강 향상 등으로 인해 과거 피해자로만 여겨졌던 여성과 노인에 의한 범죄증가. 여성범죄와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
		범죄의 동기	범죄의 동기 자체가 일시적, 충동적, 우발적 범죄에서 의도적, 비인격적, 중독적 범죄증가. 전통적으로 저소득층의 저학력 남성이 범죄의 가해자였다면 이제는 소득, 경제력, 사회적 지위, 성별과 관련 없이 내면 인격의 결함으로 인해 크고 작은 범죄증가.
		범죄관련스펙트럼 증상 (범죄에 취약한 성향이나 성격군 증가)	인격 장애, 우울증, 자살 및 등 범죄 관련 스펙트럼 증상이 증가. 그만큼 범죄를 일으킬 위험군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
교정복지의 배경	역사/철학/성경적 배경	성경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해석 및 접근	<p>십계명의 원리를 근거로 한 폭력, 거짓증거, 간음, 살인, 질서위배의 문제에 대한 해석</p> <p>기독교 세계관의 창조-타락-구속 분석틀에 따른 성경 속의 범죄역사 분석, 오늘날의 범죄와 비행행동에 대한 해석</p>

교정복지 세부영역	세부사항	특성 및 구체적인 예	
	교정복지와 타학문간의 연계성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교정학 행정학 법학	과거의 형사정책과 제도, 경찰 등의 대응이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인문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법학, 형사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와 합력을 통한 분석과 대응마련의 가능성을 연구
	영성에 대한 관심 증가	영성중심의 범죄에 대한(중독을 중심으로)접근. 종교(영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 교정영역에 대한 종교계의 관심 증가와 제도적 사회적 차원에서 교정영역에 종교계의 참여를 증진을 위한 과제모색	
	교정과 삶의 연관성	범죄추세가 범죄가 단순한 사고에 의한 범죄행위에서 고도의 기술과 복잡하고 치밀한 계획 하의 범죄로 점차 바뀌고 있으며, 빈곤탈피가 아닌 대인관계의 갈등으로 범죄동기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 더 이상 범죄의 문제가 [특정 계층의 사회적 소외]로 인한 빈곤탈피, 물질과 재화의 추구문제가 아닌, [대인관계라는 특정 계층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원인]으로 그 범위를 확장. 특정 개인의 기질이나 운명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관, 생활양식, 사회와 삶의 문제임.	
교정복지 연구	범죄심리 분석	통제의 심리 조종의 심리 자격의 심리	사례 분석을 통한 자신을 향한 비인격화와 타인을 향한 비인격화 메커니즘 이해
	중독	우상숭배	물질중독-행위중독을 통해 나타나는 우상숭배의 속성과 중독으로부터의 극복방법 제시
	성격장애	부적응적 성격 및 성향	경계선, 편집성, 연극성, 자기애성,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원인과 메커니즘 분석
	상처	거절감 공허감 분노 열등감	본질적으로 죄성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처의 종류와 상처의 발전과정, 그로인한 성격형성과 행동 및 관계 상의 문제에 대한 분석, 상처회복의 방법 연구
	교정의 과정	구체적인 변화의 단계와 과정을 분석	단계 1. 흑암과 혼돈, 절대 절망의 상태 단계 2. 변화의 시작(변화의 시작 단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단계 3. 뭔가 문제라는 인식(추상화된-모호한-문제의식) 단계 4. 각성단계 1): 이상과 현실의 일치 필요성(삶의 구원 개념을 받아들임) 단계 5. 각성단계 2): 현장검증 단계 6. 실천/적용단계: 공장과괴 단계 7. 과정: 철저한 낭만 버리기 단계 8. 재활훈련 단계 9. 적극적 교정복지의 단계(적극적 변화를 자신의 안팎에서 이루는 단계)

교정복지 세부영역	세부사항	특성 및 구체적인 예	
교정복지 연구	발달과업과 교정	심리성적 발달단계와 교정과의 관계	예) 에릭슨의 심리성적 발달단계 1.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2. 자율성 대 수치심 3. 주도성 대 죄책감(술선성 대 죄의식) 4. 근면성 대 열등감 5.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6. 친밀성 대 고립감(소외) 7. 생산성 대 침체 8. 자아통합 대 절망
삶과 교정	교정의 실제	삶의 각 영역에서의 구체적 개입기술 및 사례: 문제(증상), 소통, 수용, 시선의 변화, 교정의 장애물, 자기관리, 대인관계, 공부, 직업(소명), 가정, 경제관념, 죽음, 출생의 의미/자녀양육/교육	
교정복지 실천기술	범죄의 기승전결에 따른 개입원리 및 기술	기존의 교정복지와 중복되는 영역	

III. 조사연구

1. 조사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교정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도를 조사하고 참여를 제한하는 장벽, 방해요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교정복지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고 좀 더 교정복지 영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회의 교정복지 전반에 대한 인식수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참여 및 관심 수준을 높이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으려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교회의 교정복지 참여현황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 학위논문 등의 각종 문헌들을 검토하여 현황, 성과 및 한계, 다양한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국내 기독교 기관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교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사수준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 5월부터 10월까지 교정복지 연구소¹⁴⁾ 주도 하에 『국내 종교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이 중 국내 기독교 기관들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국내 주요 종교별(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지역별(서울,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규모별(50명 미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500명 미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5000명 이상)로 종교기관을 추출하여 설문을 발송하고 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으며, 조사는 우편으로 이루어졌다. 표집방법은 각 교단 별로 운영특성과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다음의 몇 가지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교단 측의 협조를 받아 교단 본부에서 배부하는 종교단체 주소록을 근거로 규모 별로 기관목록을 추출하여 설문을 배부하였다. 혹은 연구자로부터 설문을 전달받은 교단 본부가 직접 설문을 배부하여 소속 종교기관이 작성토록 하고 수거하여 연구인에게로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 지역 노회의 회장이나 부회장이 속한 기관을 선정하거나 규모가 적은 교단의 경우 교단 신문사로부터 협조를 받아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기관들을 추천받아 설문 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를 위해 설문 및 설문에 관한 안내문과 답례품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설문은 기관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작성하도록 하였다.

분석 내용에는 조사대상기관의 일반적 특성, 기관의 사회복지 참여수준, 교정복지에 대한 인식과 관심수준, 교정복지 참여의사 및 참여 장벽,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0.0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전국적으로 국내 기독교 교단, 교파를 고루 포함하여 설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구한 1,652개 기관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294개의 기독교기관(단체)이다. 여기에서 기독교 기관 및 단체라 함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활동,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교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 외에도 기독교 신문사, 선교기관 및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편설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약 17%라는 응답률은 일반 인식조사의 경우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모든 기독교 기관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조사는 각 교단을

14) 교정복지연구소는 교정복지전문학교 산하 연구소로서 국내 유일하게 교정복지 제반 영역에 대한 연구, 교육, 캠페인만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이다. 본 저자는 교정복지연구소에서 연구자로 소속되어 있다.

고루 포함한 전국의 기독교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비행과 범죄 영역은 일반적으로 조사응답률이 다른 영역에 대한 조사응답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교정 분야에 대한 기독교 기관들의 태도에 있어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연구결과

1) 조사대상 및 대상기관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은 종교기관의 의사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각 조사기관의 전체적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담임 목회자나 단체의 장(長)이었으며(전체의 67%), 일부 성직자나 장로, 권사 등 신도의 장(長)이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주로 40, 50, 60대의 응답이 많았다. 성별은 남자응답자가 전체의 79.0%로 여자응답자의 비율보다(21.0%) 많았다.

조사대상 종교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위치, 교단, 규모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가 속한 기독교기관/단체¹⁵⁾들의 위치는 서울이 26.9%, 인천과 부산, 광주 등의 광역시가 17.7%, 이 외의 시(市) 지역이 38.4%로 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교단별 응답분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전체의 39.7%로 가장 많았고, 구세군 대한본영(19.2%), 대한성결교회(13.1%), 기독교대한감리회(12.1), 한국기독교 장로회(8.8%),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3.4%), 기독교한국침례회(2.4%), 대한성공회(0.7%) 순으로 나타났다.¹⁶⁾ 조사대상 기관(단체)의 규모는 50명 미만이 전체의 22.6%(67개 기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 13.5%(40개 기관),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이

15) 여기에서 기독교 기관 및 단체라 함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활동,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교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기독교 신문사, 선교기관 및 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16) 본 연구에서는 교회를 포함한 종교기관 및 단체의 사회복지 전반 및 교정복지에 대한 관심(참여)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의 주요 기독교 교단을 조사에 다양하게 포함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교단 별 기관들의 응답비율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교단은 구세군 대한본영이었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조사나 연구 응답에 대한 참여율, 기관의 규모 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9%(62개 기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16.9%(50개 기관),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이 19.3%(57개 기관), 5000명 이상이 전체의 6.8%(20개 기관)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4〉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예산규모

내 용		응답자 수(비율%)				
응답 기관	위치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군(읍, 면)지역	
		79(26.9)	52(17.7)	113(38.4)	50(17.0)	
	합 계			294(100)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구세군대한본영	
118(39.7)		26(8.8)	36(12.1)	57(19.2)		
대한성공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예수교 대한성결교	기독교한국침례회		
	2(0.7)	10(3.4)	39(13.1)	7(2.4)		
합 계			297(100)			
규모	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명-500명 미만	
	67(22.6)		40(13.5)		62(20.9)	
	500명-1000명 미만		1000명-5000명 미만		5000명 이상	
	50(16.9)		57(19.3)		20(6.8)	
합 계			296(100)			
응답 자	직급	성직자리더	성직자	신도리더	신도	기타
		199(67.0)	37(12.5)	40(13.5)	18(6.1)	3(1.0)
	합 계			297(100)		
	성별	남성		여성		61(21.0)
230(79.0)						
합 계			291(1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6(2.1)	26(9.1)	67(23.3)	108(37.6)	67(23.3)	13(4.5)
	합 계			287(100)		

2) 조사대상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실시 여부 및 주요 사회복지사업

이번에는 설문응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시 여부 및 각 기관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국내의 기독교 기관들은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정, 노숙자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운영 혹은 복지활동에 참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아동관련 사업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0.5%, 청소년 관련 사업이 28.5%, 저소득 가정 관련 사업이 38.6% 등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노인관련 사업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기관의 59.3%로 나타나 가장 많은 기관들이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장애인 관련 사업이 24.1%, 여성 관련 사업이 8.5%, 노숙인(부랑자)관련 사업이 13.6%, 기타사업이 13.2%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기관 중 사회복지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7.5%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기독교 기관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및 참여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조사대상기관의 사회복지사업 실시현황과 사회복지관련 지출내역

내 용	응답자 수(비율%)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 (중복응답)	실시함	아동	90(30.5)	여성	25(8.5)
청소년			84(28.5)	노숙인	40(13.6)	
노인			175(59.3)	저소득 가정	114(38.6)	
장애인			71(24.1)	기타	39(13.2)	
실시 안함		22(7.5)				
기관예산 중 복지지출비율	5% 미만	5-10%미만	10-20%미만	20-50%미만	50% 이상	합계
	34(16.0)	51(24.1)	68(32.1)	39(18.4)	20(9.4)	212(100)

3) 교정복지에 대한 관심 및 참여의사

① 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 및 교정복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기관 및 단체들은 범죄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 보통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관심이 많다’는 응답도 43.6%나 되어 교회가 사회의 범죄문제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범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로는 절반이 넘는 경우(65.2%)가 ‘내가 속한 사회의 문제이므로’라고 답하였다. 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범죄자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한 경우도 25.2%나 되었다. 출소자가 재범을 한다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2.3%가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낙인과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에 응답한 기독교 기관 중 많은 경우가 비행과 범죄의 문제를 범죄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와 모든 구성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상당한 경우가 비행과 범죄행동의 변화가능성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 기독교 기관들에게 현재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자의 건강한 사회정착을 위한 참여와 지원에 대해 소개한 후 우리나라도 종교기관에서 이러한 관심과 참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렇다(전체 응답의 59.6%)와 매우 그렇다(28.1%)를 포함한 긍정적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보통이다가 11.3%,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는 전체 응답의 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대부분의 기관들이 교정복지 영역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교정복지영역에서 출소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종교영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사회적 책임(43.8%), 재범률저하(30.9%), 종교적 사명(23.2%) 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비행과 범죄영역에 대한 기독교 기관들의 이러한 인식결과는 많은 기독교 기관들이 비행과 범죄의 문제를 처벌과 정죄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각 사회구성원도 변화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정복지의 전제에 비교적 가까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표6〉 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 및 교정복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

내 용		응답자 수(비율 %)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	거의 관심이 없다	6(2.0)
	관심이 조금 있다	50(16.9)
	보통이다	77(26.0)
	관심이 많다	129(43.6)
	매우 관심이 많다	34(11.5)
	합 계	296(100)
범죄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	나와 가족의 안전 때문에	6(2.1)
	내가 속한 사회의 문제이므로	184(65.2)
	뉴스나 신문을 통해 자주 접해서	16(5.7)
	범죄자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71(25.2)
	기타	5(1.8)
	합 계	282(100)

내 용		응답자 수(비율 %)
재범의 원인	출소자 본인의 성격/기질	58(23.1)
	해결되지 않은 가족 내 갈등과 불화	27(10.8)
	자원부족으로 인한 생활고	17(6.8)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낙인과 차별	96(38.2)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기술의 부족	43(17.1)
	기타	10(4.0)
	합 계	251(100)
출소자보호에 대한 종교영역의 관심과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매우 아니다	2(0.7)
	아니다	1(0.3)
	보통이다	33(11.3)
	그렇다	174(59.6)
	매우 그렇다	82(28.1)
	합 계	292(100)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재범률 저하 기대	72(30.9)
	사회적 책임 때문	102(43.8)
	종교적 사명 때문	54(23.2)
	기타	5(2.1)
	합 계	292(100)

② 범죄 실태 및 출소자 실태에 대한 인식

이번에는 비행청소년 및 범죄자의 실태에 대해서 기독교 기관 및 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응답기관들은 범죄자의 문제와 이들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관심을 표현한 반면, 실제 출소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는지 등의 실제적인 상황 및 정보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도소에서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출소자가 매년 수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과 이들이 숙식, 자원부족, 사회의 낙인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대해 알고 있는냐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잘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이 전체의 34.9%로 가장 많았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33.2%, 보통이다가 23.4%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공되는 출소자 관련 지원(숙식제공, 재정지원, 취업알선 등)에 대해서는 응답의 절반에 해당하는 49.5%가 ‘잘 모른다’라고 대답했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16.9%를 차지했다. 주변에 출소자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분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른다’가 31.4%로 가장 많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29.7%로 많았다. 외국의 추세에 대하여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출소자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지만 실제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기관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정복지에 대해 단순히 필요성이나 관심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련지식이나 참여의 정도에 있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섬김과 변화에 대한 높은 이상과 당위성은 있으나 이것이 현실에서의 인식과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증거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태도가 범죄와 비행 영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관심이나 필요성만이 아닌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경로와 구체적인 지침 및 방안마련은 물론,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비행과 범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등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7〉 범죄 실태 및 출소자 실태에 대한 인식정도

내 용	응답자 수(비율)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출소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	9(3.1)	103(34.9)	69(23.4)	98(33.2)	16(5.4)
	합 계		295(100)		
출소자지원 관련인식	50(16.9)	146(49.5)	61(20.7)	34(11.5)	4(1.4)
	합 계		295(100)		
출소자 지원인력 관련인식	44(15.2)	91(31.4)	54(18.6)	86(29.7)	15(5.2)
	합 계		290(100)		
외국 민간참여에 대한 인식	26(8.8)	131(44.3)	82(27.7)	47(15.9)	10(3.4)
	합 계		296(100)		

③ 교정복지 지원에 관한 의사

이번에는 기독교기관들의 교정복지 영역에서의 향후 실질적 참여의사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출소자들이 교도소 혹은 소년원 출소 후 숙식을 제공받거나 직업구직에 필요한 상담, 정보 등의 도움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인 갱생보호시설 운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개인적으로 후원할 의사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응답 기관들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이 지원된다면¹⁷⁾ 출소자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은 30.8%가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28.8%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16.1%를 차지했다. 한편, 직접적인 시설운영 외에 재정 및 물품후원, 자원봉사와 같은 다른 직간접 지원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은 결과, 51.2%가 ‘의사가 있다’, 30.2%가 ‘보통이다’, 9.6%가 ‘매우 있다’라고 응답해 직접 운영보다 많은 기관들이 직간접 지원에 대한 긍정적 참여의사를 밝혔다. 응답자가 속한 기관과 별도로 응답자(설문 대상 기독교 기관의 의견을 대변하는 담임 목회자, 기관의 장, 성직자, 신도의 장 등)가 개인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의사가 있다’ 44.5%, ‘매우 있다’ 7.9%) 답변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속 기관에서 출소자를 지원할 경우 기관(단체) 구성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부분적으로 찬성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6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구성원들의 반응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복지 영역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기관 및 단체의 단위로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개인이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응답 경향은 교정복지에 대한 이원론적 태도를 보여준다. 앞서 제시한 기존 연구결과들이 공통적으로 전통적 교정복지에서의 기독교 참여가 가진 문제로 다른 종교 영역 및 비종교영역에 비해 참여는 높은 반면 그 수준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전문성과 질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것과 동일한 이원론적 태도의 결과이다. 단순 숙식제공이나 금전적 지원 차원을 넘어 삶에서의 깊은 관심과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17) 현재 출소자에게 갱생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법인 및 기관에게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출소자시설을 포함한 갱생보호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 간주되어 각종 세제감면혜택,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재원활용 및 국가 예산지원 증가, 공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양한 노력이 제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8〉 교정복지대상자(출소자) 지원에 관한 의사

내 용	응답자 수(비율)					
	전혀 없다	없다	보통이다	있다	매우 있다	잘모르겠다
시설운영 의사	3(1.0)	47(16.1)	84(28.8)	90(30.8)	23(7.9)	45(15.4)
	합 계			292(100)		
직간접 지원의사	3(1.0)	9(3.1)	88(30.2)	149(51.2)	28(9.6)	14(4.8)
	합 계			291(100)		
개인적 지원의사	0(0)	18(6.2)	109(37.6)	129(44.5)	23(7.9)	11(3.8)
	합 계			290(100)		
기관 구성원 의사	전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5(1.7)	찬성할 것이다		74(25.6)
	부분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191(66.1)	전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19(6.6)
	합 계			289(100)		

다음으로 교정복지시설(출소자 지원시설)을 운영한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선호하는지 구체적인 선호 서비스 유형에 대해 물었다.¹⁸⁾ 조사결과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서비스는 삶에서 조언과 도움을 주는 멘토(mentor)연결 서비스였다. 전체 응답기관의 60.5%가 이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멘토링 서비스는 실제로 국외에서 지역사회 교회에 의해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서비스 중 하나이다. 출소자 및 비행청소년에게 지역사회의 교회를 통해서나 직접 기독교인 멘토를 연결해 줌으로써 그 멘토를 통해 영적 양육, 자원 연결, 삶에서의 지지와 조언 등 삶의 전 영역에서의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심리상담이 57.4%를 차지해 멘토 연결과 유사하게 교회가 출소자에게 조언자나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구직훈련(37.1%), 정보제공(34.7%), 출소자 가족지원(34.7%), 교육프로그램(35.7%) 등을 선호한다는 응답들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통적인 출소자 지원방식인 숙식제공은 29.9%를 차지했고 의료지원은 18.6%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대상 기관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다른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어떤 형태의 지원을 선호하겠는지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재정후원이 32.4%로 1순위, 심리 및 의료전문가 지원이 38%로 2순위에서 각각 가장 높은 응답률

18) 이 문항은 다른 문항과는 달리 선호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면 모두 체크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을 얻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에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후원하는 자원동원 기관으로서 참여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응답기관에게 출소자 지원에 대한 참여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가장 필요하다고 본 것은 종교적 사명식이었으며(29.5%)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지지 및 지원, 신도들의 동의가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응답기관들이 기관의 교정복지 참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종교적 사명(29.5%)을 꼽은 것은 기독교 기관의 교정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한 교정복지의 필요성과 체계를 설명하고 캠페인을 통해 설득하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회 및 그리스도인들의 교정복지 참여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교정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사를 가진 교회나 기관에 전통적 방식의 숙식제공에서 벗어나 상담이나 정보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등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참여의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참여방식에 있어서 또한 직접 참여뿐만 아니라 간접 참여, 집단 및 개인 참여 등 참여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실질적 참여율을 높이고 보다 참여를 광범위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정복지가 갖는 의미와 의의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함으로써 교회가 기존의 단편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 시대 개인과 사회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적인 방식의 도움을 제공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이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전인격적 케어와 사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원론 극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9〉 교정복지시설(출소자시설) 운영시 선호서비스 유형

내 용	응답자 수(비율)			
	출소자 시설 운영시 선호하는 서비스 (복수응답)	숙식제공	87(29.9)	출소자 가족지원
심리상담		167(57.4)	멘토연결	176(60.5)
의료지원		54(18.6)	교육 프로그램	104(35.7)
구직훈련		108(37.1)	기타	11(3.8)
정보제공(복지혜택 등)		101(34.7)	잘 모르겠다	20(6.9)

〈표10〉 출소자 시설 운영시 선호하는 지원 및 참여결정에 필수적 요건

내 용		응답자 수(비율)	
		1순위	2순위
선호하는 지원종류	재정후원	92(32.4)	40(16.3)
	심리 및 의료 전문가	58(20.4)	93(38.0)
	구직 및 사회복지 혜택 등 정보제공	62(21.8)	72(29.4)
	장소제공	46(16.2)	37(15.1)
	기타	2(0.7)	1(0.4)
	잘 모르겠다	24(8.5)	2(0.8)
	합 계	284(100)	245(100)
참여 결정에 필수적인 요건	사회적 인식	52(18.2)	38(14.0)
	종교적 사명의식	84(29.5)	45(16.5)
	교단의 지지(동의)	11(3.9)	17(6.3)
	신도들의 동의	47(16.5)	59(21.7)
	정부 지지 및 지원	54(18.9)	60(22.1)
	자원(인적, 물적) 확보	26(9.1)	43(15.8)
	출소자 지원에 대한 세금면제나 법령제정 등의 제도 정착	10(3.5)	10(3.7)
	기타	1(0.4)	0(0)
	합 계	285(100)	272(100)

V. 결론

본 연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영성과 자원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기독교적 믿음과 실천을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삶의 전 영역에서의 실천을 다루는 기독교사회복지와 사회구성원의 전인격과 전 삶의 영역의 변화를 다루는 교정복지의 두 영역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정복지의 개념 및 체계를 성경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통합하는 이론 및 실천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분석을 통하여 교회를 포함한 국내 기독교 기관들의 사회복지 전반 및 교정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수준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을 통해 교회의 참여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이를 통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기관들의 사회복지전반에 대한 참여수준과 교정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설문분석결과 대부분의 조사 대상 기독교기관들은 하나 이상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기관들은 교정복지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이는 국내외 여러 연구들의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김미숙 외, 1999; 김청호, 2001; 문화규, 2007; 유장춘, 2000). 기관들은 주로 사회적 책임을 참여의 동기로 꼽았으며, 범죄의 문제를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와 교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실제 범죄 실태나 출소자에 대한 지원현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실천과 관련된 응답기관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관심과 필요성은 있음에도 실질적 참여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참여만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높은 이상과 당위성은 있으나 이것이 현실에서의 인식과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이원론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비행과 범죄 영역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의 모색과 함께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한 교정복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를 자신과 사회의 변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통합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함께 교회의 현실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득체계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할 시 멘토링 서비스나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싶다는 기관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과거 숙식제공과 같은 전형적이고 획일화된 지원 형태에서 탈피하여 재정후원이나 멘토링(mentoring), 심리상담, 자원봉사 인력제공, 정보제공, 장소제공 등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역사회 교회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각 기독교 기관이 각자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 상황, 여건, 강점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 각 교회의 특성, 비전, 담임목회자나 리더의 소명에 따라 맞는 사역의 범위나 종류를 구체적으로 컨설팅하고 다른 지역사회 및 기독교 기관들과의 네트워크와 협력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교단 차원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세워져야 한다. 더불어 건강한 영성과 상식에 근

거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사회를 대상으로 관심과 인프라구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캠페인과 더불어 참여절차와 과정을 설명하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구체적으로 교육할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중대형 교회들은 물론 소형교회나 미자립 교회까지도 교정복지 영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와 기회를 마련해주고 체계적인 참여절차와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원복 외, 2011)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나 교회와 기독교인 연구자, 임상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도모가 시도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제도와 인력의 부족이 아니라 뜻(spirit)과 열정(passion)이 있는 개인이 얼마나 꾸준히 시도하느냐의 문제이다. 뜻있는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리스도인 연구자들¹⁹⁾이 이론적 근거와 지식체계,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 임상가들과 행정가들이 현장에서 일하며 협력 보완할 수 있다. 교회 안의 행정, 법,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전문인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협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로 교정 복지에 대한 시각의 전환(패러다임 시프트, paradigm shift)을 도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일반화 근거와 필요성 제시는 원론으로서 의의와 당위성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범죄와 비행의 발단, 발전, 회복과 치유의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해석과 이론 및 실천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각론의 과정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독교 기관의 교정복지 참여 및 인식 조사결과는 복음적 시각을 바탕으로 교정복지의 연구 및 실천의 각론을 펴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함의를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점에서 교정복지의 일반화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하고 이후의 작업을 소개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의 연구로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수행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이론 및 실천 기술에 대해 제시하는 한편, 교정복지 영역에 대한 기독교인과 교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응답률이 다소 낮아 교정복지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기

19) 교정복지전문학교는 2001년 이원복 목사에 의해 설립되어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연구, 저술, 전문인력 양성, 캠페인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교정복지연구소 및 교정복지 협회와 연계하여 교정복지의 기초철학, 체계,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관들이 주로 응답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교정복지에 대해 비우호적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I. 함의

기독교세계관은 하나의 추상적 학문적 개념이 아니다.(넨시 피어시, 2006).²⁰⁾ 그것은 우리 삶의 실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적 세상은 그리스도인만이 꿈꾸는 이상적 사회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실현되어야 할 하나의 이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높은 이상과 가치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매일 천국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인격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형식적인 교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당위성(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적용 방법에 대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체계가 결여되어 모호한 상태에서 정체된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모양과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삶에서는 비(非)그리스도인과 다를 것 없는 인격과 태도와 생활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한국 교회는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로 빠른 시간 내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영적 체질개선의 노력이나 시도는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서구 국가들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이는 학문과 신앙이 통합되어야 할 배움과 연구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 연구자와 학생들이 동일한 세속적 가치관의 잣대로 살아간다. 이제 그리스도인 연구자들은 기존 학문의 제 이론과 관련용어들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구속적(救贖的) 시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이론 및 실천, 사회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인과 비(非)그리스도인 모두를 설득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중독과 범죄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저연령화되

20) 넨시 피어시, 『완전한 진리』, 홍병룡 역, (서울 : 복 있는 사람, 2006), 111.

고 험악해지고 다양해지는 범죄율이 높은 사회 내에서 종교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범죄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영적 측면의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는 주체들이다. 그러한 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범죄에 대한 우려나 대처가 아니다. 교정에 대한 관심은 우리 모두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며 영혼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심리, 경제, 사회, 영성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회복을 위한 도움과 전인격적 케어를 제공하는 주체로서의 역량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주체로서 개교회와 교단, 국가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 더 넓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라는 공적 개념의 측면에서 함께 연합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 땅의 천국 구현을 위한 도모를 시도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한계와 문제를 직면하고 정직하게 변화를 시도하는 교정(correction)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먼저 교정된 존재로서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특성과 필요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 서로 다른 규모와 특성을 가진 교회들이 협력해야 한다. 또한 복음적 원리에 따라 사회가 운영, 확장, 발전할 수 있도록 다른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이 시대 영적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 교정복지영역은 교회가 이 시대의 영성을 깨우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 이상적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좋은 땅이다.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선교적 도구인 교정복지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참여와 연합이 필요한 때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경환 (2006). 한국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15호, 65-73.
- 강기정·변미희 외 (2004). “기독교 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저널』. 5. 95-109.
- 강춘근 (2004).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과 학문』. 9(1). 41-85.
- 강춘근 (2005). “기독교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소고.” 『신앙과 학문』. 10(1). 9-49.
- 교정복지전문학교 (2005). 『교정복지핸드북』. 서울: 한국교정복지전문학교.
- 김동배(1993). “기독교 사회봉사의 비판적 고찰.” 『연세사회복지연구』. 1. 93-119.
- 김미숙·홍석균·이만식·유장춘 (1999).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정호 (2001). “교회와 지역사회의 복지협력체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회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 넌시 피어시 (2006). 『완전한 진리』. 홍병룡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 문화규 (2007). “한국교회의 생명목회와 지역사회봉사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 박선영 (2009). “미국 내 종교단체의 수용자 교화개선 프로그램과 수용자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교정담론』. 3(2). 25-47.
- 박종삼 (2003). “교회사회사업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방안.” 『교회사회사업』1. 9-33.
- 박창우 (2007).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에 따른 실천모형 개발-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배임호 (2008). “교정시설 내 종교프로그램이 재소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41. 115-140.
- 양혜원·김희수 (2011).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업의 현황 및 발전적 역할 모색.” 『신앙과 학문』. 16(3). 173-209.
- 유장춘 (2000). “교회사회복지활동 결정요인으로서 목회자와 그 생태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복·김미숙·박민선·박혜련 (2011).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민간전문시설 확충방안: 종교단체의 참여확대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정찬·김근재·남광재 (2002). 『한국교정교화복지사』. 서울: 한국교정복지전문학교.
- 최옥채 (2006). 『교정복지론』. 학지사.
- 한인섭 (1993). “교정교화분야의 민간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 홍봉선 (2004). 『교정복지론』. 현학사.
- Benda, B. (1995). “The effect of religion on adolescent delinquency revisited.”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46-467.
- Burkett, S. (1977). “Religion, parental influence, and adolescent alcohol and marijuana use.” *Journal of Drug Issues*, 7. 263-273.

- Hercik, J., Lewis, R., Myles, B., & Roman, C. (2004). Development of a guide to resource on faith-based organizations in criminal justice, Caliber Associates Publications.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dgkinson, Weitzman, & Kirsch (1988). From Belief to Commitment.
- Johnson, B. (2011). More God, less crime: why faith matters and how it could matter more, PA: Templeton Press.
- Laub, J. & Sampson, R. (Ed.) (2001). Evidence of desistance from crime. In Micheal Tonry(Ed.),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 28. pp. 1-69.
- Mears, D., Roman, C., & Wolff, A. (2006). "Faith-based efforts to improve prisoner reentry: assessing the logic and eviden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4.
- Regnerus, M. (2003). "Linked lives, faith and behavior: intergenerational religious influence on adolescent delinquenc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2(2). 189-203.
- Wuthnow, R. (2004). Saving America? Faith-Based Services and the Future of Civil Society. UK: Princeton University Press.

Caringforexoffenders <http://www.caringforexoffender.org>

Exodus Ministry <http://www.exodusministriesdallas.org>

Prison Fellowship <http://www.prisonfellowship.org>

뉴스미션 2006.11.12.일자 기사. 조성애 기자 "[특수선교]⑤ 교도소선교: 교도소선교, 출소 후 자활까지 도와야"

<http://www.newsmissio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81>

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y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Christian Churches In Correctional Social Work Field – An Analysis Focusing On The Christian Worldview –

Min-Su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ctional Welfare Institut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specific approaches for Christian churches and Christians to integrate their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To do so, this study explored the social, economic, and spiritual meanings of Christian churches' participation in correctional social work field. Also, this study surveyed the actual conditions and degree of interests and motivations to participate of Christian organizations (focusing on churches) in correctional social work field.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the concrete approaches to increase the degree of churches' participation with the results and suggested several way for Christian churches' correctional social work practice.

Key Words: correctional social work, Christian social work, Christian worldview, ex-offender assistance